

주간 충현

언약을 붙들고 이웃과 세상 속으로

교회설립 70주년 기념 주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단 9:2)

순전도 초청 교구모임

일시: 9월 10일(오늘) 오후 2시
장소: 각 교구별 모임 장소

브릿지 공동체 가을 수련회

주제: 성벽재건 프로젝트 (느 1:1~11)
일시: 9월 15일(금)~16일(토)
장소: 충현 기도원

새가족 환영회

일시: 9월 17일(주일) 14:00
대상: 23년 6월~8월 새가족 기본과정 수료자
장소: 베다니홀

권사회 전체 영성훈련 및 월례회

일시: 9월 19일(화) 10:20
장소: 본당 및 실시간 영상

70년 전인 1953년 9월 6일 전쟁의 폐허 가운데 있던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충현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아 70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70은 죄로부터의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회복 되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70년 만에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교회의 생일을 맞아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세워져 또 다른 충현의 70년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배려가 있는 주차 안내

1. 본당 앞마당 및 통로 주차 시 예배 후 즉시 이동하기!
2. 통로 주차 시 기어는 중립, 주차 브레이크는 해제하기!
3. 주차 시 연락처 남기기!
4. 예배 후 30분이 지나면 다음 예배로 인한 통로 주차로 출차가 어려움!
5. 교회 주변 이면도로 및 거주자 주차 구역에 주차하지 않기(과태료 부과됨)!



『충현 디지털 역사관』 온라인 시범 서비스

70주년 기념 주일을 맞아 2023년 10월말 정식 오픈 이전에 수집된 사진과 자료들의 일부를 활용하여 시범 오픈합니다. 기록물을 통해 함께 기쁨과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3년 9월 1일(금) 오픈

관람하시는 방법: 교회 홈페이지 접속후 "디지털 역사관" 선택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

충현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



권순웅 총회장



한규삼 담임목사

충현교회 70주년이 한국 교회의 과거를 들여다 보고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창문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시 2023.9.10(오늘) 오후 3:30

장소 충현교회 본당

1. 기념 감사 예배

설교: 권순웅 목사(총회장)

사회: 한규삼 담임목사

대상: 충현교회 성도 및 본 교회 출신 목회자/성도

2. 축하행사

지난 주일(9월 3일) 설교 되새기기

우리 밖에 있는 '우리 양'

(요한복음 10:16-18)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분을 통한 인류 구원의 사역을 네 가지의 각각 다른 관점으로 알려줍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반면,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의 급박함을 드러냅니다. 이에 비하여 요한복음은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서술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열 두 제자 중 한 명으로, 외적 리더였던 베드로보다도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었던 내적 리더였습니다. 요한은 매우 오래 살았는데, 다른 복음서들이 쓰여진 이후 25년이 지나 100세가 되었을 무렵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65년 넘게 사역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기록한 복음서였기에, 요한복음은 기록되었을 당시 성도들 사이에서 권위가 있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1)" 하늘의 관점에서 이전의 관점들(땅의 관점, 약속의 관점, 복음전파의 관점)을 총괄하는 요한복음은 서두에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같은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고자 하심이었습니 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음이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하늘의 관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3:13-15)" 예수님의 돌아가심(죽음)의 첫 번째 의미는 죽음(Dying)인데, 성경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에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요 12:32-33)" 예수님의 돌아가심의 두 번째 의미는 되돌아가심(Return)이며, 예수님 혼자 들리심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함께 들려지는, 구원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 3:3)" 니고데모에게 중생을 말씀하실 때의 거듭남이라는 하늘로부터 낚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인 하늘의 관점은 본문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더욱 강조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 10:11)"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 10:15)"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을 돌보시는 특별한 방식은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움켜쥔 채 놓지 못하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이유입니다. 무언가를 너무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살리시며, 높은 곳으로 올리셔서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의 교훈을 보다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약성경에 기록된 목자와 양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목자는 대부분 생업으로 양을 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지역의 주된 산업이 목축업이었기에 목자는 당시 가장 흔한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양들은 호강할 수도, '세상의 밥'이 될 수도 있다고 성경은 기

록합니다. 한 사람의 목자는 약 150 마리의 양을 키울 수 있었는데, 그 목자의 능력과 헌신에 양들의 운명이 좌우되었기에 목자는 리더로 표현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한 나라의 통치자가 목자로 비유되는 이유입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 23:1)" 세상의 왕이나 권력자가 아닌 '여호와와 나의 목자'라는 다윗의 고백은 그 절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개념이 발전되어 구약성경 뒷부분으로 가면 '목자인 왕'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자 일꾼, 그리고 사역자로 세우셔서 양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이루시리라는 예언도 나옵니다. 다윗 왕이나,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아가 성경은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때의 모습이 목자인 왕이라 말씀합니다. 양들을 보호하며, 번성케 하고, 양들의 회복을 담당하실 분이 메시아이시기에, "나는 선한 목자"라는 예수님의 선포는 구약의 예언에 따른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심을 밝히는 말씀이었습니다.

선한 목자의 명령

구약에 기록된 좋은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며 양들을 잘 인도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구약의 목자보다 더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첫 번째 특징은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과 그 안의 갈등은 물론 우리의 필요까지도 알고 있으시며, 이를 돌보시고 공급해주심을 뜻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 중 하나는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예리고의 세리이자 키가 매우 작았던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 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다가오셔서 얼굴을 마주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했지만, 친히 다가와 주셔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삭개오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12사도 중 한 사람인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의 이야기도 또 다른 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요 1:47)" 예수님께서서는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직접적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시지는 않았지만, 나다나엘 안에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두 번째 특징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으시며, 세 번째 특징은 양을 위한 완벽한 우리가 되어주셔서, 그 울타리 안에 양들이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6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안의 양들에게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을 데리고 들어와 다시 한 무리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회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루어야 할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이 온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를 한 국교회의 모범될 만큼 잘 수행해왔지만, 70주년을 넘어 100주년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의 마음과 음성을 다시 한 번 듣길 소망합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것으로만 즐거워하지 않고, 울타리 밖의 양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돌보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 배진현 목사

주일 1~3부 예배 설교·한규삼 담임목사



Sermon in English Translation

Our Sheep Outside the Fence

(John 10:16-18)

Rev. Kyu Sam Han

The four Gospels inform us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and the work that saves mankind through him from four divergent perspectives. While the Gospel of Matthew shows the prophecies of the Old Testament from the Jewish perspective were fulfilled through Jesus, the Gospel of Luke develops logically from the Gentile perspective, not the Jewish perspective,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and the stories about salvation. The Gospel of Mark reveals the urgency of professing who Jesus is. In comparison with this, The Gospel of John is narrated from the perspective of God. John is one of the twelve disciples and was an internal leader who was closer to Jesus than Peter who was an external leader. John lived very long, and 25 years after other gospels had been written, around when he was almost one hundred years old, the Gospel of John was written. Since the gospel was written by 'a Jesus' loving disciple' who ministered over 65 years after Jesus had ascended into Heaven, the Gospel of John was authoritative among believers when it was written.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John 1:1)" The Gospel of John that generalizes the previous perspectives(the perspective of earth, the perspective of the covenant, the perspective of spreading the gospel) from the perspective of Heaven proclaims at the beginning 'Jesus who is the word is the same as God the Father'. The reason why Jesus was on this earth embodied in the flesh was to give direct teachings to humans who cannot face God because of their sins. "Jesus said to him,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John 14:6)' The 'perspective of Heaven' that the Gospel of John says is that the Son of God who was in Heaven came down to this earth, made the way to go forward to God, and went back to God again. "No one has ascended into heaven except he who descended from heaven, the Son of Man. And as Moses lifted up the serpent in the wilderness, so must the Son of Man be lifted up,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may have eternal life.(John 3:13-15)" The first meaning of Jesus' going back is Dying, and the Bible says that because He came down from heaven, the Son of Man must be lifted up. "And I, when I am lifted up from the earth, will draw all people to myself." He said this to show by what kind of death he was going to die.(John 12:32-33)" The second meaning of Jesus' going back is Return and explains the image of lifting up of not only Jesus but also all the people around and with Jesus, that is, the image of salvation. "Jesus answered him, 'Truly, truly, I say to you, unless one is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John 3:3)" When Jesus told regeneration to Nicodemus, the meaning of born again is born from heaven. The perspective of Heaven that is characteristic of the Gospel of John is emphasized more in the text through Jesus, the good shepherd.

Jesus the Good Shepherd

"I am the good shepherd. The good shepherd lays down his life for the sheep.(John 10:11)" Jesus referred to himself as the good shepherd. "just as the Father knows me and I know the Father; and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John 10:15)" The special way of taking care of sheep by Jesus who is the good shepherd is to lay down his life. That's why, as believers, we should lay down the greed that we just clutch but not discard. If we clutch something too tightly, we can not seize the hand God holds out to us. When Jesus laid down his life, God grasped Jesus with his hands of power, enlivened him, raised him up to a high place, and empowered him to govern the whole universe and every creature in the world. In order to examine the lesson of the good shepherd more deeply, we should first examine the shepherd and sheep recorded in the Old Testament. Most of the shepherds recorded in the Old Testament were sheep farmers on an occupation-for-living basis. Because the main industry of the Palestinian-Israel region was livestock farming, a shepherd was one of the most common occupations at that period. It was the work that anyone could do, but the Bible records that sheep can be happy and comfortable or can be the 'prey of the world' according to the shepherd. A shepherd could

tend and guard a flock of about 150 sheep, and the fate of the sheep depended upon the shepherd's capability and devotion to them, therefore a shepherd is expressed as a leader. That's why the deliverer of God's words, or ruler of one nation in the Bible is compared to a shepherd.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Ps 23:1)" David's profession that the Lord, not the king of the world or the power holders, is my shepherd is the zenith. From here, the concept is developed a little further, and in the latter part of the Old Testament, the concept of 'the shepherd the king' appears. And there comes also the prophecy that God, the shepherd, will appoint the king of the world as God's representative ruler, worker, and minister so that he fulfills the work which is needed for the sheep. King David, or King of Persia, Cyrus who made the Israelites go back to Jerusalem after seventy years in Babylonian Captivity is a representative illustration. Furthermore, the Bible says the feature of the coming Messiah who will save the world is the shepherd the king. Since the one who protects, prospers, and takes charge of the restoration of the sheep is the Messiah, the proclamation of Jesus, "I am the good shepherd." was the statement which enlightened he was the Son of God and Messiah according to the prophecy of the Old Testament.

The command of the Good Shepherd

The good shepherd described in the Old Testament protected, restored, and led his sheep well, but Jesus did more ministries than the shepherds of the Old Testament. The first trait of Jesus the good shepherd is the fact that he knows the name of his sheep, and the sheep know his voice. The statement that Jesus knows our names means that he knows our lives, conflicts in them, and also our needs, and takes care of and provides us with these things. There is a scene in which Jesus calls his disciples' names in person in the Bible. One of the representative illustrations is the story of Zacchaeus. Zacchaeus, a tax-collector at Jericho, who was short in stature, climbed a sycamore tree to see Jesus. By the way, Jesus himself reached where Zacchaeus was, seeing him face to face, and addressing him by name. That's why Zacchaeus could not but profess Jesus whom he just wanted to see even from afar, and who came close to him in person, and calling him by name, as the 'Son of God'. "Jesus saw Nathanael coming toward him and said of him, 'Behold, an Israelite indeed, in whom there is no deceit!'"(John 1:47)" The story of Nathanael, one of the twelve disciples of Jesus, a friend of Philip's, is another illustration. When Jesus met Nathanael, he didn't call him directly by name, but said there was no deceit in Nathanael. The second trait of Jesus the good shepherd is that he lays down his life for his sheep, and the third trait is that he became a perfect fence for his sheep and made them stay within the fence. "And I have other sheep that are not of this fold. I must bring them also, and they will listen to my voice. So there will be one flock, one shepherd(v. 16)." Jesus the good Shepherd commanded the sheep in the fold and ordered them to bring the 'other sheep' that are not of the fold and make one flock with them again. Celebrat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church, I expect that the spirit of the nation evangelization and the world mission that we must fulfill will be awakened once again within all believers. We have done well enough to become the model of Korean churches, but proceeding to the 100th anniversary over the 70th, I hope we listen to the heart and voice of the Lord once again. I bless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we are not pleased with being within the fence, but the blessing that we think and take care of the sheep outside of the fence with the heart of the Lord will be present.

교회설립 70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고 사신 주님의 몸 된 충현교회가 설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70년 전 1953년 9월 6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중구 인현동 한명덕 집사댁 2층에서 18인이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써 당시 한국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던 우리 민족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충현교회는 설립 이후 순교자적 신앙과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의 바탕 위에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에 힘입어 빠른 부흥과 성장을 하여 1990년대까지 교단과 한국교회를 선도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당시 우리교회에게는 '한국교회 최초와 표준'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따랐는데 그 예로 주일학교 계단공과 편찬, 겨울 어린이성경학교 개최, 해외 선교사 파송 및 북한선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충무로 예배당이 포화상태가 되어 수용의 한계에 이르자 강남 새 예배당을 허락하여 주셔서 신령한 예배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공간과 장소로 활용되는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이곳 역삼동 새 예배당으로 이전하여 영적 리더십 교체 이후 한동안 초대 담임 목사 시절의 30여년의 긴 시간 동안 하나씩 축적되어 왔던 교회의 영적 자산과 인프라들이 하나로 결집되어 외부로 힘차게 분출됨으로써 충현의 영적 잠재력과 저력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마음껏 사용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리더십 교체의 연이은 실패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한 갈등과 분열로 많은 상처와 아픔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적지 않은 성

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첫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영적 교만과 무지함이 가져다 준 결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성도님들의 간절한 회개와 결단의 기도예 응답하셔서 예비하신 담임목사님을 보내 주시고 목회비전을 하나씩 하나씩 실현해 나감으로써 교회가 안정되며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3월 학술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행사들이 충현의 온 성도들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은혜롭고 순직하게 진행되어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은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현의 70년 역사는 영광과 아픔으로 점철된 역사이며,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70년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교회설립 70주년을 통해 우리 교회가 과거를 온전히 청산하고 회복하며, 온 성도들이 역사 속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은총에 감사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충현 공동체가 언약을 붙들고 하나가 되어 기쁨과 감사로 교회설립 100주년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충현교회의 70년의 역사는 교회와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의 역사임을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당회서기 이상석 장로

무임직분자 호칭 부여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아 다른 교회에서 직분자로 계시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 분들께 무임 직분자 호칭을 부여하였습니다.

무임장로(5명)

신만성 4교구	탁일천 4교구	정인수 6교구	박병문 9교구	김구현 11교구
------------	------------	------------	------------	-------------

무임은퇴장로(10명)

노성태 1교구	유현중 2교구	이광수 4교구	김승권 5교구	김영진 5교구	조병구 5교구	송원열 8교구	최정남 8교구	이기숙 9교구	엄균영 10교구
------------	------------	------------	------------	------------	------------	------------	------------	------------	-------------

무임안수집사(13명)

신장순 1교구	윤도영 1교구	김연섭 2교구	전순호 5교구	김동균 6교구	장동식 8교구	남용일 10교구	신용욱 11교구	오세탁 11교구	이재문 11교구
장종근 11교구	한길웅 11교구	이석균 12교구							

무임은퇴안수집사(5명)

정계수 1교구	박근주 4교구	신경철 8교구	김기석 10교구	백 중 10교구
------------	------------	------------	-------------	-------------

무임권사(27명)

김애경 1교구	서현선 1교구	권분경 3교구	김경선 4교구	김순애 4교구	김현미 4교구	성정례 4교구	홍정희 4교구	김은자 5교구	김화심 5교구
장성자 5교구	조성옥 5교구	황연희 5교구	안현숙 6교구	김순덕 7교구	김혜자 8교구	박윤숙 8교구	변혜숙 8교구	정태순 8교구	지경연 8교구
황성애 8교구	이화순 9교구	길보숙 10교구	서경선 10교구	김경희 11교구	김예정 11교구	심혜련 11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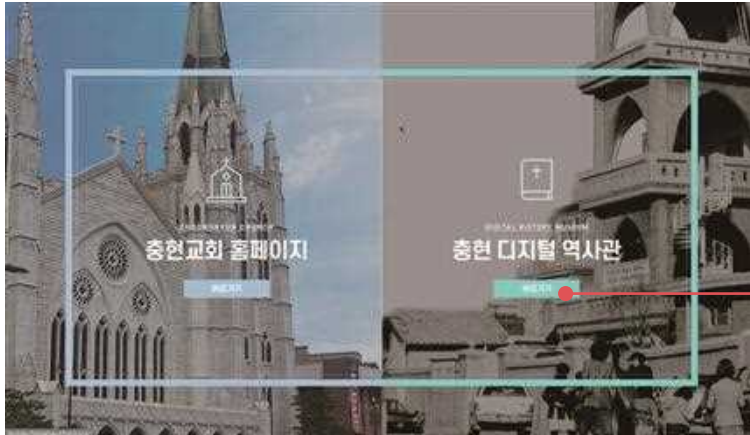
무임은퇴권사(12명)

김명자 1교구	김영임 3교구	심경옥 3교구	정규연 4교구	조영자 4교구	최영옥 4교구	한정애 4교구	김남례 5교구	선연희 5교구	유정순 6교구
김남례 5교구	유정순 6교구								

(시행일 : 2023.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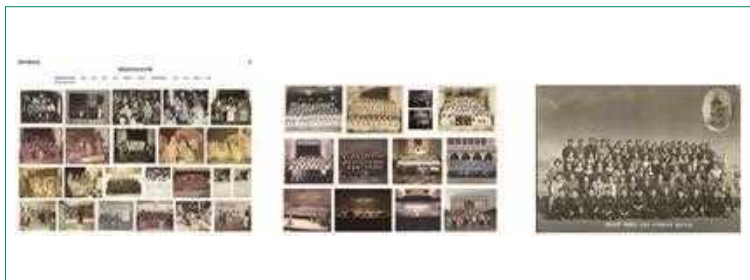
충현 디지털 역사관 소개

『충현 디지털 역사관』은 하나님께서 충현교회 위에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던 역사의 기록물들을 디지털 방식으로 수집, 보관,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2023년 10월 말 정식 오픈을 목표하고 있으며, 70주년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가 기록물을 통해 기쁨과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준비 중인 내용의 일부를 체험하시도록 2023년 9월 1일 시범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정식 오픈 때까지 기능과 자료에 있어서 많은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으며, 시범 서비스에서의 부족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좋은 역사적 기록물이 있으신 경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1. 충현교회 홈페이지 접속하신 뒤 오른쪽 "충현디지털역사관" 클릭
2. 충현 디지털 역사관에서 **사진기록** 또는 **콘텐츠** 클릭
 - 사진기록 : 각 교회학교들과 찬양대의 과거부터 최근 사진 중의 일부 공개
 - 콘텐츠 : 하나님께서 성전건축과 천국일꾼양성을 위해서 하신 일과 김창인 초대목사님과 역대 목사님들의 설교말씀 공개

■ 사진기록 예시



■ 콘텐츠 예시



[NAS를 활용한 디지털역사관 자료 제공(업로드) 요청 안내]

*NAS(네트워크 부착 스토리지)는 충현교회에서 마련한 사진, 비디오, 음악 및 문서와 같은 디지털 파일을 수용하는 데이터 저장 장치입니다

10월말 "충현디지털역사관" 정식 오픈시에 공개될 자료는 9월 12일(화)까지 NAS에 업로드 된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후에 수집 또는 업로드 된 자료는 10월말 이후 단계적으로 공개됩니다. 10월말 정식 오픈시에 공개되기를 원하시는 자료나 사진 등은 기한 내에 각 부서별 NAS에 업로드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각 위원회 및 부서

- NAS 접속 (<https://charnas.quickconnect.to/>) 및 해당 폴더에 업로드
- 각 위원회 및 부서별 아이디와 패스워드 : 설명회 및 단체 카톡방을 통해 안내 완료(필요 시 해당 아카이브 TFT 담당자에게 문의)

개인적 제공

- 사진, 문서, 동영상 등 전자파일 우선, 실물은 사진, 책자 등 스캔 용이한 자료 한정
- 다른 물건은 일정상 추후 제공 방법과 일정 안내 예정
- NAS 접속 (<https://charnas.quickconnect.to/>) 및 제공자용 폴더에 업로드
- 제공자용 아이디와 패스워드 문의 : 임광빈 집사 010-8732-7315

마더와이즈 회복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안에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기간: 9월 14일 ~ 11월 2일 매주 목요일 7주 과정
 시간: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대상: 교회학교 학부모 / 예비 엄마 / 55세 이상 마더들
 회비: 40,000원(교재 포함)
 신청기간: 9월 3일(주일) ~ 9월 10일(주일) 8일간
 야외모임: 4주차 모임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아래 링크 및 주간충현 참고)
 문의: 박은영 집사(010-9252-3483)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전교인 부흥회

교회설립 70주년을 맞아 전교인 부흥회가 지난 8월 30일(수)부터 9월 1일(금)까지 3일간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원로), 송태근 목사(삼일교회 담임), 김남준 목사(열린교회 담임)님을 모시고 성도들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기대와 사모함으로 본당을 입추의 여지없이 가득 채운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예배에 교구와 차세대, 교육 부서를 포함해서 매일 평균 3,000여명의 성도들이 참여했으며 실시간 온라인을 포함하면 5,900여명 이상이 매일 풍성한 말씀 잔치에 참여 하였습니다. 그동안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던 비대면 시대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으며, 특별히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1,500여명의 성도들이 기도카드를 통해서 기도제목을 적어내고 교역자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를 통한 말씀이 풍성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아이부터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드린 70주년 기념 부흥회는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는 자리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 방황할 때가 있었던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 우리가 순종하며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며 완성되는 자리임을 또한 나의 끝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때임을 깨닫고 나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길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전부를 내어 주신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사랑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마음 다해 “아멘”이라고 외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교구 김경숙 권사

부흥회를 통해서 충만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죄인 중의 죄인이며 못난 저에게 말씀의 식탁을 풍성히 차려주시고 영적 가족으로 인정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그리고는, 옥련아 이름을 불러주시며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사명을 주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시간이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난 주님 밖에 몰라요 라고 고백하며 거룩함으로 덧입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형통함을 소유한자로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눈물이 회복되는 시간이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3교구 조옥련 권사



갑작스런 감기몸살로 부흥회 참석을 못할 것 같았으나 70주년의 큰 행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니 누워있기가 더 괴로워 참석했습니다. 예배는 주님과 교제 시간이며 하루 중 가장 든든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변화가 없을 때 나도 모르게 어두운 터널 속에 있게 됩니다. 부흥회 첫 시간에 주님은 그 어두운 터널에서 힘없이 주저 앉은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흘러버렸던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 오셨습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내 영혼을 소생 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바라봅니다.

6교구 이한나 성도



이번 3일간의 부흥회를 통해 내 귀를 때리는 말이 있었다. ‘존재만으로 귀한 아이’ 그 말씀을 듣고 보니 가족 하나하나가 존재 자체로 귀히 여겨지며 주위가 아름답게 느껴졌다. 또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이름을 불러 주시며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 음성에 반응하며 주위를 귀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온 세상이 내가 여호와 인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 드리는 결단을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형통함을 소망합니다.

1교구 강인선 권사



△ 9월 5일 화요새벽예배 후 기도카드를 들고 기도하고 있는 교역자들

‘교회설립 70주년 전교인 부흥회’ 소식은 믿음이 나약해져 고민이던 내게 단비와 같이 반가운 소식이었다. 기도하며 부흥회를 기다리던 시간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 상황과 같이 한 줌의 구름을 기대하는 간절함의 시간이었다. 드디어 시작된 부흥회 첫날 권성수 목사님께서서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전제로 성령이 임하시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함을 강조하셨다. 둘째 날 송태근 목사님은 감옥에 갇힌 요셉을 통해서 형통은 세상적인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이라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이 아니라 생명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파송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 김남준 목사님은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갈릴리로 돌아가 디베랴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찾아 가셔서 식탁을 차려주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질문을 하시고, 사명을 주셨다. 제자들을 다 독여서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이다. 전교인 부흥회는 성령의 세례가 폭포수처럼 몰아친 말씀 잔치요 천국잔치였다. 모처럼 사흘 동안 본당 1층과 2층을 꽉 채운 회중들의 열기가 이를 말해주지 않는가!

7교구 이인용 안수집사

충현교회 70주년 역사자료 전시회를 70배 즐기는 방법!

본당 1층
역사자료 전시회로
함께 가보실까요?



본당 1층
역사자료 전시회로 입장!



남는 건 사진!
포토존에서 기념사진 찰칵!



벽면을 따라 1953년 교회 설립
이후 사진들을 감상하세요.



교회가 보관해 온
역사 자료들도 잘 살펴보세요.



키오스크에 더 많은
교회 사진들이 준비되어 있어
주제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영상 자료들도 감상해보세요.



교회 색칠하기 이벤트에 참여하면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입적자 명단 ※ 충현의 가족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기본과정 수료자(25명)

김경옥 김남례 김시내 김영진 김한일 김효원 박미라 방상숙 신경철 신예진 오성인
유정순 이연주 이윤지 이희상 장윤정 장준호 장철수 정태순 조을순 최은아 프란체스카
홍정희 황영혜 황지혜

교육위원회(6명)

고정우 손하준 강하늘 강하람 이우주 허보운

차세대위원회(3명)

이경이 조정민 강지은

에바다부(4명)

정병호 장지혜 조영권 유송권

임시당회

일 시: 9월 12일(화) 오후 7시

안 건: 당회 서기 선출

고3 수험생을 위한 일대일 기도후원자 모집

기도 기간: 10월 1일(주) ~ 11월 16일(목) 수능시험일 까지 지원 방법: 충현기도실 게시판에 기록
지원 마감: 9월 22일(금) 12시 문 의: 황경분 차장 010-2013-5006 주 관: 중보기도부

금주 단기선교 및 동역교회 파송

	선교 및 전도지역	팀장 및 파송인원	기간
인도네시아 2팀	인도네시아 스마랑	이인숙 권사 외 7명	9월 11일(월) ~ 9월 18일(월)
1교구 1팀	춘천 축복교회	최근준 권사 외 9명	9월 15일(금) ~ 9월 17일(주)

예배 담당(9/13~9/17)

날 짜	예 배	설 교	사 회	기 도
9/13	수요 I	사도들이 집중한 것 (행 6:1-6) 박영환 목사	위안복	김종선
9/15	금요일집회	충현교회 5대목표-세계 선교 (마 24:9-14) 한규삼 담임목사	박성덕	
9/17	주일 I 주일 II 주일 III	만날 이유가 없는 사람과 만나게 될 때 (행 10:44-48) 한규삼 담임목사	박성덕 권혁근 박영환	김명성 최민석 박재현
	주일찬양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 (빌 1:9-11) 정석훈 목사	신경철	김대학

※ 설교제목과 본문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교구별 주력새벽기도(9/11~9/17)

날짜	설교자/기도자	설교본문	주력교구
11 (월)	박영환/한장현	왕상 4:1-19	6교구
12 (화)	한규삼/양호민	왕상 4:20-34	전교인
13 (수)	임대영/김우정	왕상 5:1-18	전교인
14 (목)	전영재/황윤성	왕상 6:1-13	10교구
15 (금)	위안복/임광빈	왕상 6:14-38	4교구
16 (토)	김유석/김유석	왕상 7:1-12	전교인
17 (주)	신경철/신경철	왕상 7:13-26	전교인

예배 및 집회 안내 (☎02-552-8200)

구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I 오 전 9:00	본 당
	II 오 전 11:00 (수어 예배,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	
	III 오 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 후 3:30	본 당
수요예배	오 전 11:00(본당)	
금요일집회	오 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 전 5:00	갈릴리홀

기도원집회 안내 (☎031-766-5425)

구분	시 간	차 량
화요일집회	오 전 11:00	①호차 9:50 본당 앞 출발(직행) ②호차 9:40 잠실역 3번출구, 10:20 야탑역 2번출구 BYC 앞

금주 화요일집회 강사: 강성은 목사
금주 기도원 봉사: 6교구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10:50~12:00	바나바홀(제1교 103호)	사랑부	10:45~11:50 (성인)	사무엘홀(제2교 204호)
유아부	10:50~12:00	마태홀(제1교 201호)		11:00~12:00 (아동, 청소년)	
유치부	10:50~12:00	마가홀(제1교 202호)	성경아카데미	12:20~13:30 (에스라)	디도홀(제1교 401호)
유년부	10:50~12:00	바울홀(제1교 301호)		12:40~13:40 (아볼로)	디모데홀(제2교 304호)
초등부	10:45~11:30	디모데홀(제1교 304호)	소망부	12:15~13:30	갈릴리홀
중등부	10:45~11:45	빌레몬홀(제1교 404호)	새가족기본과정부	오 후 12:10	베다니홀
고등부	10:45~11:40	베드로홀(제1교 504호)	새가족양육부	오 후 12:10	엠마오홀
청 년 1 부	14:00~15:30	에스라홀(제3교 B201호)	11교구	오 후 12:10	느헤미야홀(제3교 101호)
청 년 2 부	14:00~15:20	한나홀(제2교 402호)	어와나부	19:10~20:50(금요일집회시)	제2교육관 4층
브릿지공동체	14:00~15:30	사무엘홀(제2교 204호)	예꿈 양육부	(주) 12:00~14:45	예꿈돌봄교실(제1교 601호)
청 년 3 부	12:30~13:50	누가홀(제1교 204호)			예꿈돌봄교실(제1교 701호)
신혼가정부	12:30~13:30	두란노홀(제1교 102호)	국내외국인선교부	11:00~12:10	역호수아홀(제2교 301호)
12교구(르투어기공동체)	13:00~13:50	야고보홀(제1교 501호)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2교육관 1층
에바다부	12:40~13:40	여호수아홀 (제2교 301호)	발달장애인교육 충현평생대학원	주간교육 (목) 오 전 11:00	충현복지관 갈릴리홀

※ 각 부서별 예배전 찬양과 예배후 반별 GBS등의 별도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개인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550	안석현	기본과정	
2	1552	지갈렙	기본과정	
3	1566	정서윤	기본과정	김종민
4	1568	양희규	기본과정	김연향
5	1569	김춘실	기본과정	

<가족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548	김옥주	기본과정	이재욱
2	1549	권오윤	기본과정	이재욱
3	1558	공성배	기본과정	김현승
4	1560	유푸른	기본과정	김현승
5	1564	김기영	에바다부	안영희
6	1565	김희영	에바다부	안영희

<차세대위원회 등록>

No.	등록번호	성 명	교육과정	인도자
1	1567	정마루	청년2부	

결혼

1. 최승준 군(최근순 타고성도·신순자 타고집사의 아들, 청년2부)과 변지연 양(변 인식안수집사·오현숙 권사의 딸, 5교구)/9월 16일(토) 13:00 충현교회 갈릴리홀

별세

1. 최병연 은퇴집사(4교구)/2일 별세, 4일 장례

섬 · 기 · 는 · 분 · 들

한 규 삼 담임목사

■ 사무장로

임창식 신광철 이상석 오순도 양기수
전도위원 충현동산이사장 당회서기 소망부장 충현복지재단이사장

김태식 이성섭 이보신 이상해 김성호
9교구장 행정위원 인사위원 기도원부장 중보기도부장

조종민 이상복 지규성 김영주 최민석
봉사위원 9교구위원장 선교위원장 전도위원 할렐루야찬양대장

김명성 이창희 백봉선 박재현 임광신
차량안내부장 충현복지재단이사장 재정위원장 행정위원 예배위원장

이흥기 송한천 조윤준 최현규 남용승
감사위원장 5교구장 세움위원장 인사위원 인사위원

김영환 변창대 허만선 안연식 현준봉
전도위원장 당회부서기 찬양위원장 10교구장 봉사위원장

양효민 박원화 이상배 박명근 김종훈
행정위원장 성례부장 기획위원장 8교구장 새가족위원장

송영상 전성욱 박건일 배종락 김철남
성경통독부장 아멘찬양대장 건축위원장 간수위원장

김희동 홍금성 강태영 장기락 홍순길
3교구장 교육훈련부장 외선부장 찬양위원장 2교구장

정인욱 남중호 윤순규 김상열 이경환
기획위원 차세대위원장 1교구장 임마누엘찬양대장 6교구장

이양선 박성철 김열환 김세종 한홍연
7교구장 11교구장 예배부장 선교위원 헌금부장

최규옥 최승민 이석재 송문식 문영규
예배위원 제자교육훈련부장 평생대학원장 안내부장 12교구장

김충식 신현욱 임병익 박노익
전도위원 실로암대장 사랑부장 교육지원부장

■ 목사

이기영 강성은 김주환 이성환 권혁근
1교구 선교위원장 11교구 12교구 7교구
윤성복 박동진 문진호 정석훈 김유석
9교구 2교구 3교구 8교구 에바다부
김상래 전영재 박영환 위안복 윤준식
브릿지 10교구 6교구 4교구 5교구
임대영 신경철 임진실 김승래 배진현
고등부 초등부 사랑부 신혼가정부 휴직
박성덕 권순동 박요셉 이다현
청년2부 청년1부 청년3부 중등부

■ 여전도사

송진경 주은숙 이수경 홍명주 유현정
5교구 6교구 평생대학원 9교구 유년부
조기숙 여정광 7교구 8교구

■ 교육목사 신명환 최준호

외선부 소망부

■ 교육전도사 김희영 이영미 박예령

유아부 유치부 영아부

■ 협력선교사

강기열 윤해균 윤명범 강영미 한용관

최동현

■ 현지사역자

송요한 자르갈 사란자야 라우단다쉬

베 웅 스테판 파우크 뿌지 군친이시

윤시안 장지축 조여인 말릭 스텔라

■ 자원선교사

강영기 김정형 김산수 김영남 김형건

박태연 안석렬 유재훈 유창무 장수진

정은희 허효셉 홍정화